

초등 · 04

중학교 가기 전 점검표

중학교에 가면 저절로 잘해지지 않습니다. 중3 수학에서 보통학력을 넘는 학생이 49.6%이고,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이 14.9%입니다.

초6 겨울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.

초6 겨울

공부에 대해

- ☐ 시간을 재고 시험처럼 풀어 본 적이 있다
한 번도 안 치러 본 아이는 중1 첫 시험에서 아는 것을 틀립니다
- ☐ 분수 계산을 막힘없이 한다 — 통분·나눗셈까지
중1 수학이 이 위에 섭니다. 여기가 비면 진도를 나가도 무너집니다
- ☐ 비와 비율을 문장 속에서 알아본다
- ☐ 도형의 넓이·부피 공식을 외워 쓴다
- 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맞힌다
- ☐ 한 달 전에 배운 것을 지금 다시 풀 수 있다
풀리면 선행이고, 안 풀리면 후은 것입니다

생활에 대해

- ☐ 알림장·준비물을 스스로 챙긴다
중학교는 챙겨 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곳입니다
- ☐ 숙제를 말 안 해도 시작한다
- ☐ 하루에 혼자 앉는 시간이 있다 — 길이는 상관없습니다
- ☐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다

공부 여섯 중 넷, 생활 넷 중 셋이면 준비가 된 편입니다. 생활 쪽이 셋 미만이면 진도보다 그쪽이 먼저입니다.

이 시기에 가장 값이 큰 것은 진도가 아니라 「시험을 한 번 겪어 보는 것」입니다 — 학원을 세 곳 다녀도 안 생기고, 한 곳에서 두세 번이면 생깁니다.